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 ①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
- ②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 ③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6.29.(목) BGF에코솔루션을 방문하여,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외인증은 수출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코자 정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5.16.)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①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②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③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원장은 “오늘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해외인증 애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최한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위원장 : 진종욱 원장)에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민호 (02-6240-4770)
	해외인증지원단	담당자	연구관	양희찬 (02-6240-4771)

<분야별 세부 내용>

1.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먼저,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국내 취득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지원 품목을 45개국 141개 품목에서 올해말 까지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시료 송부 등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EU, 동남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두 번째로, 해외인증 관련 통합 정보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험인증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1개국 583개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산업 규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기업애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3.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

셋째,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수준에 맞게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해외인증 정보,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수적인 정보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23년, 1,000개사)하고, 수출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23년, 100개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준별 맞춤 진단·자문('23년, 30개사)을 실시한다.

4.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범부처 해외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4월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창구에 접수된 애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부처 애로정보를 총괄·관리한다.

I. 해외인증의 중요성

- 수출기업에게 있어 해외인증은 수출 3대 애로 중 하나로, 해외 인증 애로 해소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
 - * 수출 3대 애로: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수출애로 상담 가운데 해외인증이 약 20%를 점유하는 등 수출 기업의 주요 애로로서 인증 취득 단계별로 인증 애로 내용 다양
 - * 코트라 수출기업 상담('22년 27,042건): ①바이어발굴(6,282건, 23.3%), ②**인증·규격**(5,325건, 19.7%), ③무역실무(5,175건, 19.1%), ④관세통관(4,575건, 16.9%)

II. 현황 및 문제점

- (인증 탐색 단계) 국가별 인증이 다수이고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우며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수출기업 활용에 한계
 - * 수출기업 주요 취득 해외인증: 북미 36개, 유럽 36개, 중남미 6개, 아시아 43개, 중동 9개 등 53개국 152개 (1381/수출바우처사업/시험인증기관 자료, '23.4월)
- (인증 신청 단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복잡한 요구서류 등 대응 한계, 수출초보·시장개척 기업은 비용 부담이 큼
- (인증 심사 단계) 시료 송부, 심사 대응, 외국심사원 국내 공장심사 등 해외인증 심사에 시간, 비용, 전문성 측면 어려움이 큼
 - * 국내 주요 시험기관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취득 난이도가 높은 45개국 71개 해외인증 대상 상호인정 지원
- (해외인증 거버넌스)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필요

III. 추진 전략

비전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목표

- ◆ **[상호인정] 비용·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
 - ▶ 71개 인증 141개 품목 → 83개 인증 171개 품목
- ◆ **[지원허브] 해외인증 정보·지원 원스톱 제공**
 - ▶ 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통합 제공, 50대 품목 가이드북 단계적 발간
- ◆ **[역량결집]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해소**
 - ▶ 1,000개사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100개사 현장 컨설팅, 30개사 심층진단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 ① 국내외 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 30개 확대
- ② 지역별 해외인증 지원 기반 확대

2.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 ① 해외인증 통합 정보 원스톱 제공
- ② 해외 기술규제 신속 대응

3.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

- ①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자문·인력양성
- ② 기업 제품 개발 단계별 밀착 지원

4.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

- ① 해외인증 지원 거버넌스 강화
- ② 애로 통합관리 및 신속 해소 프로세스 구축

①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 국내 주요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

* (기존) 45개국 71개 인증 141개 품목 → (개선) 49개국 83개 인증 171개 품목

- 인증 취득 난이도가 높거나 국내 영리시험기관이 지원하기 힘든 융복합 新기술 분야 등 수출기업 수요 반영

⇒ 업계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상호인정 지원 품목 지속 확대

-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新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인증 기관과 인증협력 채널 구축(MoU 체결, '23.4월) 및 시험소 지정 추진

* (전기차 충전기) 美 UL-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MoU → 美 UL과 시험 협력 (체외진단·의료기기) 美 혈액은행협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MoU → 美 인허가 지원

- 유럽 CBAM 및 新 배터리 규제 등 탄소규제 적기 대응을 위한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23년~)

-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승인 추진 (계속~)

-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인증기관으로 지정 추진 ('23년~)

* UAE의 ECAS(안전)·EQM(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 추진 → 국내 시험기관에서 중동 전체 인증 가능 (걸프지역통합인증(GCC), 사우디아라비아인증(SASO) 등 병행 취득)

②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코트라·시험인증기관·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센터(중기부) 등 유관 기관에 구축된 해외인증 관련 정보(지원사업) 원스톱 제공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export.k-onestop.kr)」에서 121개국 583개 인증정보 통합 제공

- 국내 상담 수요가 높은 50대* 품목은 단계적 가이드북 발간, 품목별 전문 상담사를 발굴하여 심층정보 제공
 - *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수요가 많은 품목 우선 발간('23년, 20품목), 완구 등 전통 수출 품목 + 新 의료기기, 소방 등 신규 수출 유망 품목 추가 발간('24년, 30품목)
- 해외 新산업 규제 도입 준비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 제공, 정부 차원 외교적 대응으로 기업애로 적극 해소
 - * WTO·FTA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 대응, 필요시 TBT 신속대응반을 적기·적소에 파견

③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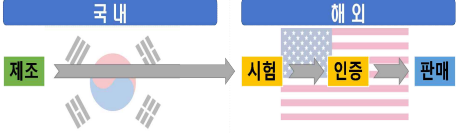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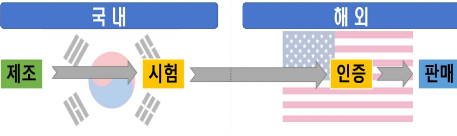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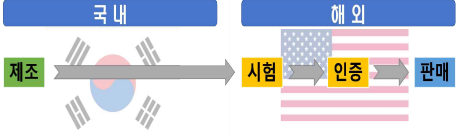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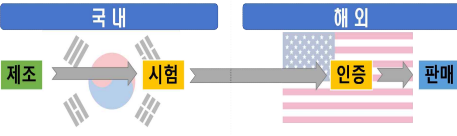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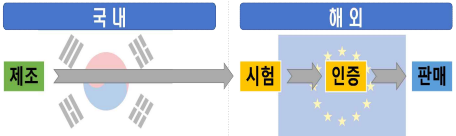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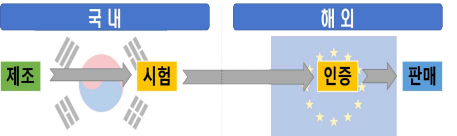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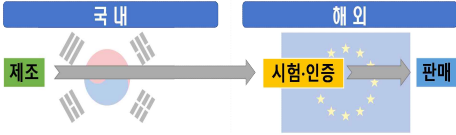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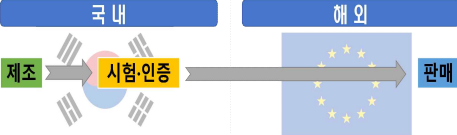
- 해외인증 정보,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요사항을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제공 ('23년, 1,000개사)
- 수출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포럼 등에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한 현장 컨설팅 진행 ('23년, 100개사)
-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수준별 맞춤형 자문 ('23년, 30개사)
- 국내 대학 표준·적합성 전공학과* 등과 협력하여 수출-해외인증 특화 청년인력(Young Professionals) 양성 ('24년~)
 - * 중앙대, 고려대, 부산대 등 5개 대학에서 표준·적합성 전문과정 운영 중
-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로 국제표준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계속)
 - *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로 국제표준 개발 → 해외인증 인증기준 기반 확보
- 융합 신기술·혁신기술 보유 기업 대상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기반 국제표준화 전문가 1:1 매치업 밀착 지원 (계속)
-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선제적 디버깅* 예방, 국내·외 시장 병행 진출 지원 ('24년~)
 - * 시험인증 과정에서의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디버깅)하는 과정, 수출 대상 국가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참여기관(시험인증기관) 노하우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④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

- 해외인증 취득 전(全)주기 종합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 민·관 합동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23.4.4. 출범)
 - * 국표원장을 단장으로 정부·한국표준협회·시험인증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
 -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분기별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이행 실적 점검 등 추진
- 각 부처, 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창구에 접수된 애로 정보를 수집하여 범부처 애로정보 총괄·관리
 - 개별 창구 접수된 기업애로를 해외인증 지원단에 공유하여 통합 관리 → 분석을 통해 애로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유관기관 전파
 - * 해외인증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위원(위원장: 국표원장)으로 하는 '해외인증 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융·복합 분야 등 정책적인 애로는 해소방안 모색

참고2

상호인정 지원 기대효과

품목	이전 (AS IS)	이후 (TO BE)
생분해 플라스틱 		
기대효과 ▼ 미국 생분해성 인증(BPI) 인증획득 지원 - (기간) 10~14개월 ⇨ 8~12개월 (시험기간 2개월 단축) - (비용) 3~4천만원 ⇨ 2.5~3.5천만원 (5백만원 비용 절감)		
품목	이전 (AS IS)	이후 (TO BE)
자율주행 통신기기 		
기대효과 ▼ 미국 Omni Air 시험기관으로 지정 - (기간) 180 시간 ⇨ 64 시간 (시험기간 4~5일 단축) - (비용) 7천만원 ⇨ 5천만원 (2천만원 비용 절감)		
품목	이전 (AS IS)	이후 (TO BE)
의료기기 MDR 		
기대효과 ▼ 유럽 MDR 시험기관으로 지정 - (기간) 2~3년 ⇨ 1.5~2.5년 (시험기간 6개월 단축) - (비용) 1.5~2억원 ⇨ 1~1.5억원 (5천만원 비용 절감)		
품목	이전 (AS IS)	이후 (TO BE)
사이버 보안 인증 		
기대효과 ▼ 유럽 CE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 (자기적합성선언(DoC) 품목) - (기간) 기존 대비 인증기간 3주 단축 - (비용) 1천만원 비용 절감		

참고3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개최

① 현장방문

- (일시/장소) 6월 29일(목) 13:30~14:10 / BGF에코솔루션(인천 청라)
- (참석자) 국표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9명
- (주요내용) BGF에코솔루션 현장시찰(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업)

< BGF에코솔루션 개요 >

설립년도	2011년	대표품목	신소재, 바이오소재 등
매출액('22)	213.2억원	종업원	37명
수출액	2백만원	공장 위치	인천 청라
주요연혁	○ '11년 친환경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체 KBF 설립 ○ '19년 BGF에코바이오가 KBF를 자회사로 편입 ○ '20년 환경표지 인증 취득, 항바이러스 관련 특허 출원 ○ '21년 생분해 관련 해외인증, 내열성 부여 관련 특허 출원 ○ '23년 사명을 BGF에코솔루션으로 변경		

② 기업 간담회

- (일시/장소) 14:10~15:00 / BGF에코솔루션(4층 대회의실)
- (참석자) 국표원장, 의료·바이오 기업(5명) 등 10명
- (주요내용) ①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②의료·바이오 제품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청취

③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 (일시/장소) 16:00~17:00 / 표준협회 가산디지털센터(13층 5강의장)
- (참석자) 국표원장, 시험·인증기관(8명), 수출지원기관(4명) 등 16명
- (주요내용) 종합지원 전략 및 기관별 지원 활동 실적·계획 공유